



이·착륙 못할라... 제설작업 분주한 제주공항 7일 제주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설차량이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올해 관광산업 5대 핵심전략 추진

도, 재도약 위해 705억 투입
 이달부터 관광기금 특별용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5대 핵심전략에 705억원(일반회계 227억원, 관광진흥기금 478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안전 관광제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조기 회복에 19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 예산 156억원을 편성했으며, 1월부터 특별용자를 시행한다.

또 영세사업체에 키오스크, 모바일 도어락 시스템 등 장비 지원과 패턴별 여행 상품 개발에 따른 상품개발비,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탐나오' 관광상품 판매 확대 및 건전 관광질서 수용태세 확립, 도내 여행사업체 등에 보증보험 지원 등 34억 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고도화 등 스마트 관광에 4억3000만원, 특색 있는 지역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

득 창출을 위한 사업에 22억원이 투입된다.

제주 웰니스 관광 15선 선정 등 콘텐트 발굴 및 홍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과 새로운 지역 유망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MICE 환경 조성에는 17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MICE 환경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MICE 셔틀버스 및 행사장 방역 지원과 스마트 마이스 메뉴 구축 및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그린 MICE 산업대전 신청 여행업체 지원 및 캠페인 등 그린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관광시장에 맞춘 관광환경 맞춤형 마케팅에는 104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코로나19 일상 속 새로운 관광환경 맞춤형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위해 스마트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혁신과 소셜미디어 운영자,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여행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한다.

오은기자 eioh@ihalla.com

신년 기획 / '위기극복, 재도약 2021년' <5> 제주경제 활성화

“면역력 강한 제주산업구조 구축 절실”

인구와 관광객 유입에 따라 성장하는 1·3차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경제가 지난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다. 허약체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신축년을 열며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함께 무너진 경제 회복이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일상의 혼돈과 불편, 그리고 힘든 지역경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제주의 미래발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사드... 경기침체... 코로나 사태 악재 줄줄이=예고 없이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은 제주경제의 중심축인 제주관광을 마비시켰다.

지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매출 감소를 본 데다 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회복이 도민 최대 관심사 외부환경에 취약한 1·3차 위주 주력산업 개편 필요
 청정안전 기반 '제주형 뉴딜' 성공 추진 발판 마련

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제주방문 관광객이 2019년과 비교해 33% 급감한 1023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식당과 숙박업계, 면세점 등 3차 서비스업계의 피해는 더욱 컸다.

특히 관광산업은 단체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중소형 숙박업소 등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선 첫다운으로 외국인관광객이 끊겨 면세점과 카지노업계의 불황도 만성화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이와 함께 제주로의 인구 유입 폭이 줄고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부동산 경기 역시 냉랭한 가운데 건축경기는 크게 악화됐다.

농산물 가격은 잇단 태풍과 긴 장마 등으로 선전을 기대했으나 감귤 값은 예년에 비해 15%가량 떨어졌고, 월동무 가격은 반토막 수준에 그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3차 산업구조 체질 개선... '제주형 뉴딜' 사활=이에 따라 더 늦기전에 외부환경에 취약한 1·3차산업에 중심을 두는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사드나 전염병 등의 외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여기에 방역이나 치안 등에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청정·안전 이미지 구축 기반이

깔려 있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지역주력산업 개편을 통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형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판·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JTP(제주테크노파크)는 올해부터 스마트관광산업, 정경바이오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을 산업별 주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175억3000만원)보다 23억원가량 증액한 198억5000원(국비 141억6800만원, 지방비 56억8200만원) 규모다. <끝>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기차·수소산업 미래청사진 제주서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5월4-7일 개최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대환·문국현·야코보사마시·알버트 람)는 오는 5월 4-7일 제주와 온라인을 병행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글로벌 친환경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망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동력을 담보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산업 등 글로벌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펼쳐는 장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상황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역 기준에 맞춘 현장전시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만날 수 있는 버추얼(Vir-

tual) 전시가 마련된다. 아울러 각종 컨퍼런스도 ICC제주와 발세·토론자들이 있는 국내·외를 실시간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해 진행된다.

세계 32개국에 참가하는 세계전기차협회(GEAN) 연례총회가 엑스포 기간 중 열려 각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5회 글로벌 EV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전기차 국제 표준포럼 ▷국제에너지컨퍼런스 ▷전기차·자율주행차 국제포럼 ▷한반도 전기차정책포럼 ▷전동농업기계 정책포럼 등도 마련된다. 백금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신축(辛丑)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since 1981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산공부리분화구